광주·전남 '서비스·도소매업' 편중…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인구 천명 당 사업체 수 85.9개…제조업 2만3803개·8.3% 불과
광주·전남 수출실적 지난해 기준 408억6400만달러 전국 최하위

광주·전남권역 사업체 가운데 제조업체 비율이 10%를 채 넘기지 못한 반면,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비중은 절반 이상(5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산업 편중으로 인해 광주·전남 재정자립도와 수출 실적은 5개 권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광역권 통계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광주·전남권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는 85.9개로, 5개 광역권 가운데 대구·경북권(87.7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1000명당 사업체 수는 동남권(83.8개), 충청권(80.8개), 수도권(75.8개)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도에 비례한 사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과반이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에 몰렸다.

광주·전남 제조업 사업체는 2019년 기준 2만3803개로, 비율은 8.3%(광주 7.5%·전남 9.0%)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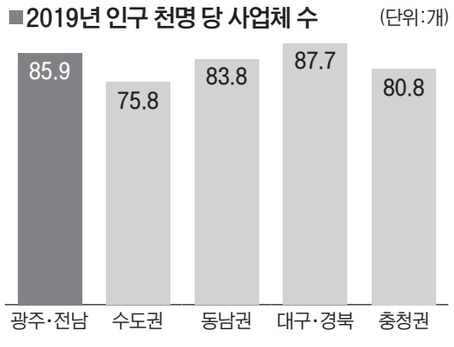
제조업체 비율은 대구·경북권(12.6%)이 가장 높고, 동남권(11.6%), 수도권(11.0%), 충청권(9.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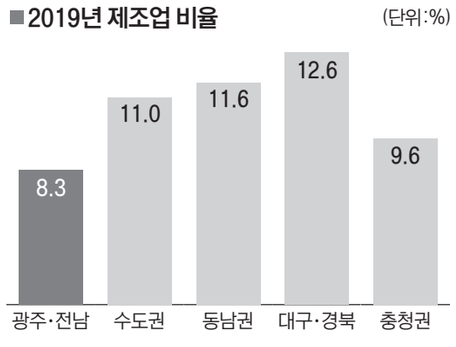
이 같은 빈약한 제조업 비중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마저도 전년(2만3119개사)에 비해 제조업체가 감소하면서 비중은 8.4%에서 8.3%로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27.1%)과 도소매업(26.0%) 사업체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 서비스업 사업체는 7만7274개로, 전체 업체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27.1%(광주 29.3%·전남 25.3%)에 달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에 이어 충청권 26.5%, 수도권 25.8%, 동남권 25.1%, 대구·경북권 24.9%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과 사업시설 관리·임대,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지역 사업체 4곳 가운데 1곳이 해당하는 도소매업 사업체 비율도 26.0%로, 광역권 중 최고를 차지했다.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광주 3만1799개·전남 4만2532개 등 7만4331개로, 전년보다 506개(0.7%) 증가했다. 사업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25.7%·전남 26.3%로 나타났다.

5개 권역을 보면 광주·전남에 이어 동남권(25.0%), 대구·경북권(24.8%), 수도권(24.4%), 충청권(24.2%) 순으로 높았다.

광주·전남은 서비스·도소매업 쏠림 현상 속에 재정자립도와 수출 실적이 5개 권역 가운데 꼴찌를 나타냈다.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32.5%로, 광역권 중 가장 낮았다.

수도권이 70.5%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47.2%), 충청권(39.7%), 대구·경북권(37.9%) 순이었다. 단 광주·전남 재정자립도는 2019년(31.0%)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대비 수출비중은 지난해 기준 8.0%(408억6400만 달러)로 광역권 중 가장 낮은데다 그 비율도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2012년 10.2%에서 2014년 9.7%, 2018년 8.5%로 떨어졌다.

광역권별 수출실적은 수도권이 40.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충청권(21.6%), 동남권(20.2%), 대구·경북권(8.5%) 순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13억6300만 달러로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광주 무역수지는 73억900만 달러였고, 전남은 40억5400만 달러였다.

인구 1000명당 창업기업 수는 26.0개로 전국 평균(28.6개)을 밑돌았다. 수도권은 32.2개, 충청권 26.8개, 동남권 23.8개, 대구·경북권 22.6개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대 70% 할인…백화점 겨울 정기세일 시작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17일 간
롯데백화점, 3만명에 할인권 증정

연말 마지막 대목을 앞두고 광주 주요 백화점들이 19일부터 오는 12월5일까지 17일 동안 올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백화점들이 처음 내건 자체 할인전이다.

먼저 ㈜광주신세계는 이 기간 동안 최대 60% 할인율을 내걸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할인 판매를 벌인다.

점포 1층 행사장에서는 모피 브랜드 진도, 동우, 박성룡 등 인기 상품을 반값에서 최대 70%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네파, 블랙야크, 컬럼비아 등 인기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아웃도어 인기 아우터 연합전'과 '겨울 방한소품 특집전'이 열린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40~60% 할인된 가격에 겨울옷을 마련할 수 있다.

비대면 소비 추세에 맞춰 ㈜광주신세계는 젊은 MZ 세대를 겨냥한 '생방송 판매'도 진행한다.

오는 22일 오전 10시에는 MLB키즈 겨울 신상품 아우터 특가 상품, 23일 오후 8시 30분 비비안 인기 상품, 24일 오후 8시 30분 쥬시쥬시, 25일 오후 8시 30분 지컷 판촉전이 벌어진다.

한편 19일부터 21일까지 제휴 카드로 단일 패션 상품을 200만·300만·500만·10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5% 상당 신세계상품권이 주어진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세계하나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7% 상당을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올 마지막 정기세일은 위드 코로나 이후 첫 대형 행사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동안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미국의 최대 할인전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착안해 오는 28일까지는 '블랙#위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벌인다.

우선 구매 금액에 따라 7% 또는 10% 상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모바일 앱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 3만명이 해당 할인권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23~28일 롯데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패션·잡화·홈패션 상품군 단일 브랜드 구매 기준으로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30만원 이상 구매 때는 3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할인권(패션·잡화·가구·생활용품)을 나눠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K2 패딩·남성코트 대전', '홈패션 알레르망·닥스 침구 특집전'(19~25일), '미소페 앵클부츠 균일가전'(19~21일), '디루치아노·이따리아나고객초대전(22~25일) 등이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온 가족 '뽀글이' 외투로 따뜻하게"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6층 컬럼비아 매장에서 플리스 소재로 만든 이른바 '뽀글이' 외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도 플리스 의류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면서 이 매장은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하위 20% 소득 역대 최고 증가…상하위 격차 5.3배로 줄었다

월평균 114만2000원·21.5%↑
국민지원금 여파로 큰폭 개선

올해 3분기에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다. 하위 20%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는 5.3배로 줄었다.

경기 회복으로 시장소득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한 지원금의 여파가 컸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5% 급증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비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만7000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보다 3.8배 높았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2.0%, 3분위(소득 하위 40~60%)는 8.6%, 4분위(소득 하위 60~80%)는 7.6%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덕분에 분배 상황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3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1년 전 5.92배보다 크게 낮아졌다.

3분기 5분위 배율은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개편된 2019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고, 전체 분기를 모두 보면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다. 즉 상위·하위 20% 간 분배 상황이 2019년 통계 개편 후 2020년 2분기를 제외하면 가장 좋았다는 의미다. /연합뉴스